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4/9℃ 목포 -2/9℃ 여수 0/10℃

단기 4343년 (음력 12월 4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77호 1판 2010년 1월 18일 월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대부분 출마 선언

민주당 경선 레이스 불붙었다

캠프 가동·정책개발·얼굴알리기 분주

오는 6·2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민주당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경선 레이스가 본격 점화됐다. 도입 추진 중인 시민배심원제와 국민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까지 일정 수준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입지자들은 이에 따라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주민접촉을 늘려가는 한편, 선거캠프 구성을 위한 인재 확보, 정책개발 전쟁도 벌이고 있다. 민주당 경선이 시도지사 선거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초반 승부'에 올인 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장**=일찌감치 민주당 시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 전갑길 광산구청장, 정동채 전 문광부장관·양형일 전 의원은 지난 연말과 이달부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박광태 광주시장도 지난 14일 3선 도전을 공식화 한데 이어 강운태 의원도 18일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어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전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은 출마선언과 함께 '선거 캠프'를 가동하며 각종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얼굴 알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박 시장은 재래시장을 방문하면서 서민 살림 살피기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 의원은 '일자리 창출' 기치를 내걸고 산업현장을 돌고 있다.

강 의원은 출마 선언과 함께 서민의 생활 현장과 중소기업 방문 등을 통해 지지도를 더욱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전 청장도 조직 정비에 나서는 한편, 세종시 수정안 등 지역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동채 전 장관은 아시아문화전당 예산과 관련, 박광태 광주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양형일 전 의원은 교수직 사퇴라는 초강수까지 두며 조직을 풀가동 하고 있다. 조영택 의원은 이번 주에 시장 출마 여부를 밝힌다.

한나라당에서는 김태욱 전 시당위원장, 정용화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 조홍규 전 관광공사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오병윤 사무총장이, 진보신당에서는 윤난실 전 광주시의원이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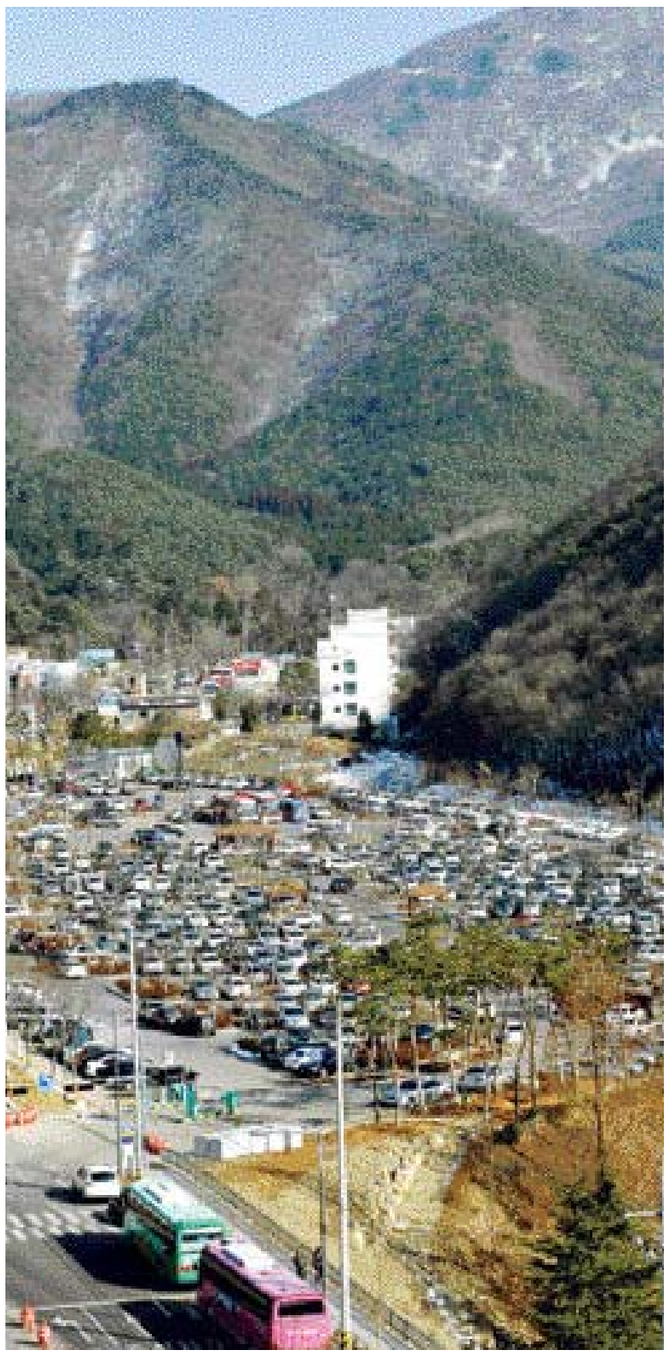
무소속인 정찬용 전 청와대 수석은 지난 연말 출마선언 이후 정책개발과 지지도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지사**=민주당의 경우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이미 출마를 선언했고 박준영 지사도 조만간 출마 선언에 나설 예정이어서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박 지사는 도정을 최대한 챙기는 것으로 3선 굳히기에 나선다는 전략이고, 주 의원은 22개 시·군을 돌며 '당원과의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연초 군수직 사퇴 이후 곧바로 22개 시·군의 영농법인과 농산물 시설에 대한 탐방을 명목으로 현장을 누비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인재 영입 결과에 따라 후보 구도에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박재순 최고위원, 김기룡 도당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민노당은 문경식 전남도당 위원장과 박웅두 강기갑대표 비서실장이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며, 진보신당에서는 최송춘 전남도당 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화창한 휴일 꽉찬 증심사 주차장 17일 오랜만에 화창한 날씨로 무등산 증심사 입구 주차장과 주변 갓길이 차량들로 가득찼다. 이날 무등산에는 외지에서 온 관광버스 100여 대가 오전 일찍부터 몰려드는 등 올 들어 최대 인파인 5만여 명이 찾았다. /김진수기자 jeans@

세종시 원형지 특혜 논란 혁신도시에 불똥

골프장 부지 민간매각 중단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유일하게 원형지 형태로 공급되는 골프장 부지의 민간 매각이 중단됐다. 세종시에 도입했던 원형지(原型地) 개발방식의 '특혜 논란 '불똥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옮겨붙은 것으로, 골프장의 용도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혁신도시의 '친환경 녹색 명품도시'조성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관련 기사 3면〉

전남개발공사는 17일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의 특별 지시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들어설 골프장부지(81만9천999㎡)를 민간 기업들에게 매각하는 계획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도시 원형지 토지공급 관련 절차상 문제점 및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시 투자 기업에 제공하는 원형지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동혁신도시의 골프장 부지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에 원형지로 매각할 경우 향후 비슷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측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는 또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골프장 부지를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로 변경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

전남개발공사는 이에따라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골프장 부지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도시내 이전기관인 사학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에게 부지를 매각해 골프장을 조성토록 하겠다는 것이지만 민간 기업을 제외시킴으로써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앞서 지난해 10월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골프장 부지 민간 매각 공고를 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골프장(72만1천260㎡)은 ㎡당 5만3천원, 페어웨이빌리지(9만8천739㎡)는 28만4천원선이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서 '생뚱맞은' 세종시 국정홍보회

내일 개최… 지역정치권·공직사회 반발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하는 '국정홍보회'가 광주에서도 열릴 계획이어서 지역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민주당 강기정의원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공동개최하는 '지방공무원 국정설명회'가 오는 19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등 모두 640명이 참석하는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나서 2010년도 국정운영방향과 국정현안사항을 전달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주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집중 홍보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국정설명회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불리한 국민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여론몰이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또 "이번 국정설명회는 질의응답도 없이 2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처럼 일방적으로 이해를 강요하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처럼 정부가 연초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 현안 설명회'를 가지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국정설명회는 국민여론 수렴의 창구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설명회는 지난 14일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전국 13개 시·도에서 6천443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경제위기 극복 과정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2시간 가량 이어진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전남 가축시장 13곳 무기한 폐쇄

포천 구제역 확산 따라

전남도가 17일 도내 가축시장 13곳을 무기한 폐쇄 조치했다. 경기도 포천의 구제역 발생 농가가 4곳으로 늘어나는 등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해서다.

폐쇄 대상은 순천을 비롯해 보성, 나주, 담양, 고흥,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신안 등 13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가축시장이다.

전남도내 소 사육농가는 3만4천225가구(46만6천마리), 돼지는 1천724가구(94만5천마리)에 달한다.

가축시장 폐쇄에 따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축산농의 피해가 우려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에는 아직 구제역 의심사례가 없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